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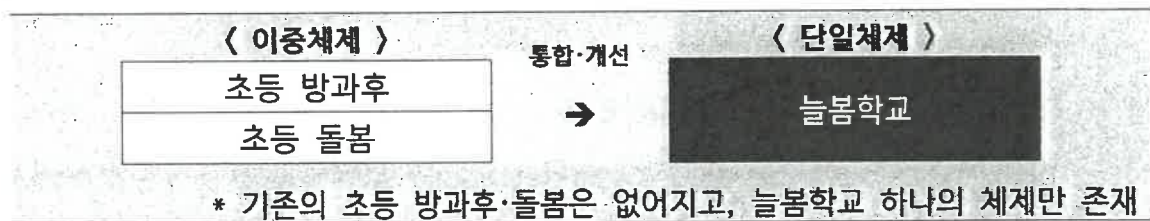
“학교안과 학교밖 모두가 따뜻한 늘봄(돌봄과 교육)의 장(場)”

정 지 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늘봄학교는 학부모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많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 양육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만 누리는 방과후·돌봄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늘봄학교로 통합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늘봄학교란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늘봄학교 집중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초등 1학년이 대상이고, 25년에는 초등 1~2학년, 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대상이 된다.

	'24년(본격도입)	'25년(고도화)	'26년(완성)
집중지원 대상	초1	초1~2	모든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희망 초1 100%*	희망 초1~2 100%*	희망 초1~6 100%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초1 희망자	초1~2 희망자**	초1~2 희망자

* '24~'25년, 집중지원 대상이 아닌 학년에게도 기존 방과후·돌봄에 참여했던 수준을 보장

** 초3 이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여부는 초1~2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 후 검토('25년)

전북교육청은 3월부터 1학기 143개교(전체 413개교 중 34.6%)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게 된다. 1학기에는 늘봄학교 추

진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안 전담인력이 확보된 75개교와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인력을 활용하는 68개교를 먼저 선정하여 추진한다.

특히 2학기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대비하여 학교 규모와 인력배치 등을 고려한 1학기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북형 늘봄은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최대 오후 6시까지, 학교밖에서 수요에 따라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특히 학교 안의 공간 부족 문제나 인력,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늘봄학교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초등 1학년 학생에게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학교생활 적응, 놀이 중심 체육,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기초학력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둘째, 전북형 늘봄학교는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안과 밖의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밀·신도심 지역의 학교 안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돌봄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밖 늘봄을 확대하였다. 전북교육청은 작은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센터, 협동조합, 교육농장, 지역아동센터 등 211개 기관을 선정하여 50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올해는 인근의 5~9개 학교의 거점센터 역할을 하는 거점돌봄센터를 3개 지역에서 운영하게 된다. 전주에서는 1월부터 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군산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군산구암초 옆 SOC복합시설을 활용하여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의 경우는 고창초 부지에 센터를 신축하여 올해 말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실무사¹⁾ 등 늘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지원청의 업무지원 역할을 강화**하여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늘봄실무사 배치: 305명(신규채용 168명(특수학교 5명 포함), 기존 방과후행정실무사 직종전환 137명), '24.7.1.자 배치 완료

- 6학급 이상 전교생 40명 이상(252개교): 1교당 1명 배치

- 6학급 이하 전교생 40명 미만(161개교): 3~4교당 1명 배치(순회 근무)

2024년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사회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교밖 늘봄을 확대하고 학교·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셋째, 단위학교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늘봄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늘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추진방향에 따른 2024년 전북형 늘봄학교의 비전과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비 전	양질의 늘봄학교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	
목 표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늘봄 시스템 구축	
중점 과제	① 학교안 늘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2시간) • 늘봄 프로그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 맞춤형 미래교실 운영 * 늘봄(돌봄)교실 시 맞춤형 학습지원 * 늘봄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 늘봄교실 유형 다양화(아침/오후/저녁)
	② 지역사회 자원 활용한 학교밖 늘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 늘봄 확대 운영 • 거점늘봄센터 운영 • 지역돌봄기관 연계 확대
	③ 교원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지원센터 역할 강화 • 늘봄실무사 배치 및 늘봄지원실 설치 추진 •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활성화

전북교육청은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을 2024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특색있는 운영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학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한다.